

바른미래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 신당 모색

■오늘 의원 10명 탈당...쫓겨가는 평화당 어디로 가나

민주평화당 내분이 결국 집단 탈당이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 생존을 위해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해 갈라서면서 자칫 공멸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 10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안정치 측은 정동영 대표가 현재의 낮은 지지율에 책임지고 사퇴한 뒤, 외부 인사를 영입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비당권파의 주장은 대안도 없는 '당권 투쟁'에 불과하며 버티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12일 집단 탈당 선언 전까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 결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호 신뢰가 완전히 붕괴, 분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끝까지 버티는 정동영 대표나, 탈당을 압박하는 비당권파나 별다른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박지현·원정배·장병완·최경환·윤영일·정인화·이용주·유성

합류 인사 찾기 쉽지 않을 듯
관류파 재창당도 가능성 낮아
호남정치 각자도생 길 갈 수도

영·김종화·장정숙 등 10명이다. 이들은 이미 탈당계를 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의원은 대안정치와 함께하진 않지만 일단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황주홍 의원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친 정동영 계열인 김광수, 조배숙 의원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현실이다. 원내 6당의 의원으로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평화당의 원내 의석은 정동영 대표 한 사람에 불과한 '1인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정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다.

한편, 대안정치 측에서는 탈당 이후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 전면에 내세워야 하지만 지지율 2% 안팎 정당에서 탈당한 세력에 합류할 인사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외부적으로는 제3지대 신당에 박주선·김동철·수승용 등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합류가 기대되지만 시간이 걸릴 전

망이다.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이 정리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손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주도권을 장악, 대안정치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입당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안정치 측에서는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손금주, 황주홍, 김경진 의원 등이 무소속을 유지하며 정치적 활로를 마련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대표 측에서는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청년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며 길을 찾겠다지만 가능성은 낮다. 당장, 평화당이 '호남 정당'에서 '전주 정당'으로 몰락했다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의 '오기 정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초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면서 평화당과 대안정치모임, 바른미래당 호남 세력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호남 정치의 한 세대가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소재원이 만들어졌을 당시인 16세기 복장을 하고 소재원 프로그램을 체험하던 중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며 소재원을 소개했다.

시티투어 '오월 버스' 탄 박양우 장관 "광주만의 콘텐츠...활성화 필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열린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 참석에 앞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시티투어 '오월 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월광장을 둘러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2시간 30분 동안 광주 광천동 성당, 국군통합병원, 대인시가지 등, 5·18민주광장 등 오월사적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과 음악,

관광이 어울어진 독특한 형식의 시티투어 버스를 체험했다. 오월버스는 민주주의의 역사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마련된 시티투어버스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번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시티투어버스에 참여한 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관광교류 감소로 인한 국내 관광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

일정을 준비했다"며 "광주시투어 오월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콘텐츠로서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홍보돼 활성화되고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10일 오전 소재원을 방문한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소재원 야상보와 함께 걷는 소재원'이란 테마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미 연합군사훈련 끝난 이달말 실무협상 가능성

친서외교로 북미회담 급물살 연내 3차 정상회담도 가시화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담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 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

북한 외무성 권경진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 관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꼭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

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 실무협상은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회동했지만, 이번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상의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이다.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고위급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미국 대선(내년 11월)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대선 국면에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日 규제에 北 잇단 도발...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고심

극일·남북 평화경제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앞으로 다가온 제 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전날과 휴일인 이날 별도의 일정보다 참모진과 경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메시지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대일 메시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의 광복절에서 일본을 향한 직접 언급에는 큰 비중을 할애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 문 대통령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된 바 있어, 울

해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대일 언급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태를 발판삼아 일본을 극복하자는 '극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대일 비판에 대한 '수위조절'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결국 메시지의 수위는 남은 기간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7년과 2018년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는 단연 '평화'였다. 올해 경축사에

도 '평화경제'를 비롯한 남북 공동번영 비전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일부에서는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로 되돌아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뒤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상당 발휘 수단은 없어 대북 메시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International Photonics Convergence Trade Fair

2019 국제 융합 비즈니스 페어 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Photonics KOREA
www.photonicskorea.org

- 기간 : 2019년 8월 26일(월)~8월 28일(수), 3일간
- 장소 : 서울 COEX D홀(3층)
- 주관 : KAPID 한국광산업협회
- 후원 :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광학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 규모 : 국내외 200개사, 참관객 8,000명, 해외바이어 200명

전시 품목 및 수출상담 분야

- 차세대 광-ICT 융합제품 등
- 광통신 시스템 및 부품, 광트랜시버, PLC 등
- LED, OLED, AMOLED, 광섬유 등 스마트조명기기 등
- ESS+스마트카, 스마트홈(5G, 스마트홈조명) 등
- 홀시큐리티 광학기기(홍채·지문·안면 인식) 등
- 웨어러블기기, 헬스케어, 의료산업/연구용 LASER, 광계측, 센서기기 등
- 광학렌즈, 플라스틱 렌즈, 평판·3차원·플렉시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등

부대 행사

- 25개국 200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2019 국제광융합산업발전포럼
- 광융합산업 기술확산교류회
-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조명 설명회
- PLC 기반산업 발전 전략 기술 교류회 및 전문가 위원회
- 전력산업 광융합 기술표준 포럼
- 광융합산업 육성지원기관 연계 세미나
- 광융합산업 신기술 전시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 정부 시상

참가 혜택

- 참가기업 개별 초청 해외바이어 지원 : 국외왕복 항공료(Economic Class 기준) 70%, 숙박 2박 100%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광융합산업발전포럼 참여기회 제공

참가 안내

부스비용	비회원사	회원사	비고
독립부스	1,000천원	800천원	기본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1,500천원	1,300천원	안내데스크1, 의자2, 카페트, 스포트라이트5, 상호간판, 콘센트1